

### “노인들 겨울나기 도움됐으면...”

법조인불교회, 자광원에 쌀·기름 기증



법조인불교회(회장 김홍근)는 20일 오후 성남 자광원(원장 김정자)을 들러 무의탁노인들을 위로하고 쌀 25포, 난방용 기름 10드럼을 기증했다. (사진)

고영준(제일종합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총무인 오국환 변호사와 함께 자광원을 방문한 김홍근회장은 “추운 날씨에 IMF환파까지 겹쳐 노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광원 김정자원장은 “새해 들어 외부지원이 거의 끊어져 자광원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도움을 받게 돼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회장인 김홍근회장을 비롯 부회장에 정정철·김정수 변호사와 권광중 서울고법부장관(서초반야회 회장) 등 판·검사, 변호사, 민사조정위원 등 2백여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조인불교회는 업무상 바쁜 일정에도 격려간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법회를 열고 있으며, 매년 복지시절을 지원해 왔다. 특히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실천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비행을 통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있다.

한편 자광원은 지난해 성남시로부터 치매요양원으로 사용할 건물 3개동 총 190평의 증축허가를 받아놓았으나 경제난으로 외부지원이 거의 끊어져 착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1년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어렵게 떠난 허가가 취소될 위기.

자광원(0342-759-5320)은 불자들의 작은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행(예금주 김정자)=074-24-0048-350. (재)

## 병상이름 나누는 ‘자비 의술’

탐방 국립의료원 법우회

18일 낮12시 국립의료원 지하 법당에는 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 단장된 법당의 모습에 기뻐하며 건강을 발원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의료원법우회(50·회장 황영회 간호과장)는 회원 50명과 파주 보광사주지 효린·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 성덕·자비전화 정덕스님을 비롯 주양자 자민련부총재와 환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집안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법당 폐쇄 위기 등 숏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날 전임회장의 전출로 새 회장에 취임한 황영회 제3대 회장은 “회장의 공석으로 잠시 중단됐던 월2회 수요법회와 무료 진료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우회는 89년 11월23일 당시 국립의료원이었던 주양자씨와 안옥수 홍보과과장 등 불자 간호사 10여명의 원력으로 창설.

90년 8월 법사스님(대구 반야선원 주지)이 지도봉사를 맡아 4.5평 가량의 지하 법당에서 20여명의 회원들



◇지난 18일 지하 법당에서 봉행된 ‘부처님 집안식’.

### 89년 창립...환자들의 손발 보육원등서 무료 진료활동

과 환자와 보호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본격적인 병원포교를 시작했다.

특히, 넷째 토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정기법회, 사찰순례와 성남 자광원, 시흥 해능보육원 등의 무료 진료봉사를 발판으로 자비행을 내실화하는 한편 초파일 연등 만들기, 불우환자 병원비 지원 등 적극적인 신년 활동을 펼쳐왔다. 또 96년 10월부터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와 결연을 맺어 매일 조편성을 해 환자들의 수족

역할을 해주는 봉사행도 실천하고 있다. 타종교세가 강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병원 직원들도 차츰 협조적으로 변했고 투병환자들도 의지처로 법당을 찾게 됐다.

이렇게 직원들을 비롯한 환자·가족들의 정성적인 안식처와 기도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덕스님과 불교자원봉사회 회원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5년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온갖 굵은일을 도맡아 하며 당면 법당을 묵묵히 지켜왔던 이보현경보살 등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주일 기자



### 북녘 의약품보내기 5천만원 전달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 부총재 인곡스님(태고종 총무원장)과 성초장사(전각종 총무원장)는 22일 한겨레신문사를 방문 ‘북녘어린이에 의약품 보내기운동’으로 모금한 성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불교추진위가 지난해 6월부터 ‘북녘어린이에게 생명을!’이라는 구호로 한겨레신문사 및 타종교 단체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의약품 보내기 운동’에 동참한 불자들의 보시금이다.



### BBS 새 이사장·사장 취임식

불교방송 제3대 이사장 도후스님, 제4대 사장 성낙승씨의 합동 취임식이 20일 불교방송 3층 대담실에서 열렸다. 성낙승사장은 취임사에서 △경영관리의 획기적 쇄신 △방송질 개선(불교포교방송으로 거듭나기)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조계종 총회회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정우(불교TV사장)스님, 서문각이사장(대한불교진종원)등 불교방송·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와 전직원이 참석.



### 전국 염불만일회 발원법회

정토세계를 열어가는 창원 불교 실천수행 기풍을 고취하고 염불신앙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결성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발원법회가 18일 동산반야회 법당에서 봉행됐다.

동산법당 2주년 기념법회도 함께 가진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표인 보광(정토사주지·동국대교수)·해장(건봉사주지)스님, 김재일(동산반야회 회장)법사를 비롯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 백련사 해조음합창단 연주회

태고종 백련사(주지 운경) 해조음합창단 연주회가 17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연주회는 합창단의 찬불가와 어린이 민속무용단, 대원여고 교직부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와 국민회의 장재석의원, 이정규 서대문구청장, 김평락 시의원, 백련사 신도회원 등 8백여명이 참석했다.

### “발우공양 실천 IMF 극복

제주 불타·관음클럽 절약 실천운동 전개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거사랑·보살회인 불타제주중앙클럽(총회장 총재만)과 제주불교관음클럽(회장 김인희) 회원들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검절약의 생활실천 캠페인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타클럽은 16일 오후 제주시 상록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수행자들의 청빈 생활의 상징인 ‘발우공양정신 피살리기’ 캠페인을 회원들이 앞장서서

펴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재만회장은 “발우공양은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공양이며, 위생과 환경보호의 절결공양, 낭비를 줄이는 절약공양, 단결과 화합을 이루어 내는 공동체공양의 의미를 갖는 불교정신”이라며 “IMF에 맞는 절약·환경보호운동으로서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관음클럽도 지난 6일 제주불교인 신년하례법회를 주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불교인의 동참을 호소하고 제주 불자들의 참회와 발우공양의 지혜로 난국을 극복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우리 모임에선

#### 만불회 감포서 방생법회

만불회(회장 학성스님)는 2월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 동안 감포 문무양릉으로 ‘달맞이 방생법회’를 떠난다. 전국에 있는 만불회원 3백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경주 기림사를 거쳐 감포 앞바다에서 달맞이와 방생법회를 봉행한 뒤 다음날 청도 운문사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꾸며진다. 서울만불회 출발 9시 강남 아크리스백화점. 회비 2만5천원. (02)522-0101

#### ‘따뜻한 손...’ 후원자 모집

경주 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스

님, 0561-41-0762)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 내밀기’운동 후원자를 찾고 있다. 구합 20일 캠페인을 시작해 2백여명의 후원자를 확보,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양남택 할머니(86세)에게 연탄 50장, 쌀 한말을 전달한 바 있는 이 모임은 단돈 천원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행(예금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604-01-0457-311.

#### 대구구도회 국난극복 3천배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대구구도회(회장 권오주)는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오전 5시까지 합천 해인사 지족암에서 일타스님(조계종 원로의



### “21세기 방승포교사 다짐”

MBC 전국불교연구 첫 합동수련

17,18일 해인사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 모인 문화방송불교연구회 회원들의 앞한 모임이 있었다. 96년 서울 MBC불교연구회 창립을 필두로 97년 대구, 부산이 차례로 창립된 이래 처음 가진 합동수련대회.(사진)

그간 각 지역의 방송 일선에서 불교연구 및 불교 바르게 알리기에 주력해 왔던 이들은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회원 상견례와 간담회로 친밀을 마무리 했다. 새벽예불의 지극함으로 시작된 땀겨운 포교극장 경성스님의 안내로

팔만대장경, 산내암자인 회랑대, 백련암을 참배했다.

서울 문화방송 유희근 회장은 앞으로 호남권, 충청권 등의 지역사에도 불교연구회를 창립시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조만간 마산, 전주, 대전 문화방송에서도 불교연구회 창립을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올 4월경 두번째 합동 수련대회를 부산 범어사에서 치를 예정인 문화방송불교연구회는 각 지역의 내실 있는 법회운영을 통해 보다 깊이있는 매체포교를 펼쳐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 지하철법우회 위기극복 기도

지하철법우회(회장 신철호)는 2월10일 오후 7시 잠실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정기총회를 갖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법회를 겸한 이날 총회에서 신철호 군자처량사무소장을 회장에 재추대할 예정. (02)412-0108

#### 경기도청 불자회 신년정초

경기도청불자회(회장 조한유)는 24일 수원 용주사에서 고문인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과 경기도의회 홍성호의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가졌다. 이날 150여 회원들은 총회를 통해 불자회 정관을 확정했다. (0331)249-4317

#### 각 장학금 50만~1백만원 지급.

(02)425-3002

#### 장흥학생회 동계 수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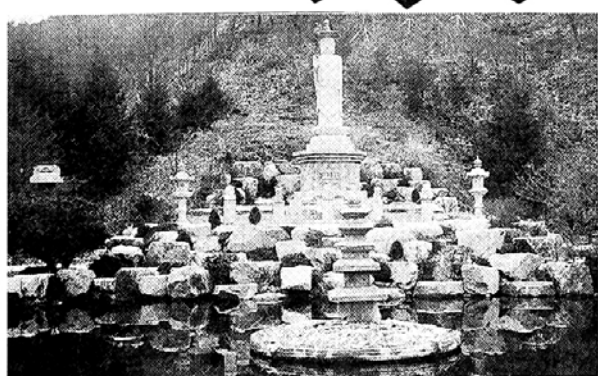
장흥학생생활회(회장 위성철)는 1월28일 장흥 장원사에서 구정법회를 열고 2월 1~3일 동계수련회를 개최. 대학생까지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 (0665)63-2687

#### 봉사모임 ‘은하수’ 회원모집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봉사동아리인 은하수(회장 복삼미)는 2월 1일부터 30일까지 봉사활동을 매개로 한 청소년 집단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교 회원을 모집. (02)806-1375

정초 기도, 윤달 사찰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조계종 마이산에는 금당사가 있다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힘겨운 한숨과 번뇌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용기있고 지혜있는 신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은 천지음양의 조화가 만들어 낸 그야말로 영산(靈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산에 금당사가 창건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인 서기 814년의 일입니다. 마이산과 금당사는 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발원하고, 일제때는 의병항쟁의 근거지였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1천여년간 곳곳이 마이산의 정기를 지켜온 금당사는 구산팔해(九山八海)의 화엄성지(華嚴聖地)로 신비한 영험을 갖고 있는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전북지방 문화재 제18호인 세분의 부처님은 수천년 묵은 은행나무를 통해 조성한 국내 유일의 불상이기도 합니다. 보물 제1266호인 높이 9m, 폭 5m의 대형괘불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은 17세기 조선시대 불자들의 수승한 신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당사의 운치를 한껏 더해주는 것은 경내의 연못 한기운데 자리잡고 있는 백제시대의 5층 석탑입니다. 모든 불자 여러분이 마이산의 정기와 금당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두손 모아 발원합니다. 금당사는 언제나 불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열린 사찰’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41번지 금당사 주지 삼혜 합장 ☎ (0655)32-0944

##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선과정 ○○명
- 강의시간 출강/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2월 28일까지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시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